



## 래일의 꿈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개울가에 쭈그리고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있는 동생을 보게 되었다. 등뒤에 가만히 다가가보니 모래와 자갈을 가득 쌓아서 흐르는 물을 잡고있었다. 그러느라니 팔소매가 다 젖고 바지가랭이에는 젖은 모래가 무겁게 매달렸다. 동생이 입고있는 옷은 분명 어제 어머니가 빨아준 옷이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성이 나서 소리쳤다.

《철이야, 너 여기서 무슨 장난을 하니?》

그 바람에 흠칫 놀라 뒤돌아보던 동생이 코등을 쭉 문지르며 투덜거렸다.

《숙젠 다했어. 누난 알지두 못하면서... 난 지금 전기를 연구하는데...》

《뭘, 연구?》

나는 그만 웃고말았다. 하긴 밤낮 《전기, 전기.》하면서 발전소건설장에 나가살다싶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았으니 그럴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야닐세라 동생은 아버지에 대해 말하였다.

《누나,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전기가 많아야 우리 나라가 더 잘살게 된대. 그래서 아버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에 전기풍년을 안아오자고 가는 곳마다에 발전소들을 일떠세우신대. 난 이답에 커서 전기박사가 될래.》

나는 동생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소학교 1학년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탁아소생처럼 느껴지던 동생이 이렇듯 엉뚱한 꿈을 꾸고있을줄이야...

나는 동생이 금방 한 말을 곱씹어보았다.

(전기풍년을 안아와야 우리 나라가 더 잘살게 된다.)

바로 그래서 우리 원수님께서 온 나라의 수많은 발전소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것 아

닌가.

어찌 전기풍년뿐이라.

지금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온 나라 방방곡곡에 풍년을 불러오고계시지 않는가.

바다에선 물고기풍년, 과수원에서는 사과풍년, 온실들마다에선 갖가지 남새풍년에 버섯풍년, 심지어 인민들이 신고다닐 신발과 우리들의 학용품이며 가방생산에서도 풍년을 안아오고계시었다.

그 많고많은 풍년을 안아오시기 위해 우리 원수님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었고 또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걸으셨으랴.

어떻게 하나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인민, 세상에서 부럼없는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해 이 시각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내 나라는 날마다 더욱 부강해지고 시간마다 부흥해지는 전설의 나라로 전변되었다.

우리 원수님 풍요하게 가꿔가시는 땅! 이 땅에 무언가 작은것이나마 보태고싶어하는 기특한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이런 결심을 비쳤다.

《철이야, 난 어머니가 키우는 버섯을 연구할래. 버섯송이가 우산만큼 커지게 말아야.》

《히야, 굉장하구나. 그러니까 난 전기연구사, 누난 버섯연구사구나.》

《하하하.》

《호호호.》

우리 오누이는 앞으로 더 멋지고 더 훌륭해질 내 나라의 래일을 그리며 즐겁게 웃었다.

항구구역 항구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

조순금